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7주일
제32권 35호(나해) 2012.7.29

[묵상]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따라 외딴 곳까지 따라온 군중,
말씀에 심취해 해 저무는지도 모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예수님,
빵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말씀으로 먼저 풍성해진 군중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신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라.
나는 그것을 축복하여
너희들의 필요를 충족하고도 넘치게 하겠다.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열두 광주리
저희의 미약한 시작을
홀려넘치게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저희의 내어놓음 없인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의 나눔은
오히려 풍성해지고 거룩해지니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음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하심이고
구원사업의 동반자가 되는 우리의 나눔은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피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처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홍지선 미카엘
특전미사	(생)김대평 나다니엘 & 김종연 야고보
주 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정운 요셉, 홍순희, 박영준 안토니오, 고준희 제임스, 강양근, 강용길, 양승길 베네딕도, 홍지선 미카엘, 오영환 안드레아 (생)이남현 막시모 & 이정아 리디아 가정, 신대철 알베르토, 유재형 요셉, 이이그 스테파노, 황윤재 베드로, 김복순 막달레나, 오창애 안나, 이행자 리드비나 & 이근모 마리오, 정우석 루카, 김서량 토마스 & 그레이스 가정, 하늘의 문pr.단원들, '안나'본명가진 본당의 모든 자매들, 오명섭 미카엘, 홍석인 체칠리아, 문발티스타 수녀,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하권(2 Kings) 4,42-44

화답송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당신손을 펼치시- 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4.1-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복 음 요한(John) 6,1-15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27	181	178
봉헌	272	261	270
성체	286	306	282
파견	247	187	18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성경과 교회 일치

마지막으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이 여러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일치 운동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말하였던 바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 본문을 번역한다는 것이 단순한 기계적 작업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해석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에 관하여 존경하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특히 서구에서 분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들 공동 번역으로 드러나는 진전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공동 번역을 촉진하는 것은 일치 운동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에 저는 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합니다.

신학 공부에 미치는 영향

47).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해석학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결과는 주석학적 및 신학적 양성, 특히 사제직 후보자의 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 참으로 신학의 영혼이 됨으로써, 신학이 오늘 세상을, 교회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 현장 「하느님의 말씀」 12항에 제시된 기준들이 실제로 고려되고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연구가 성경에 대하여 중립적이라고 여기는 사고를 기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언어들과 적절한 해석 방법들을 배우는 것과 더불어 깊은 영성 생활을 지님으로써 성경은 그 성경을 살아 낼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수되고 기록된 하느님 말씀의 연구가 언제나 깊은 교회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학문적인 양성에서 교도권의 관련 발언들을 올바르게 존중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봉사한다. 이 권한은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고 성실히 해석한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경과 교회 교도직은 하느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각기 독립되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연구가 이루어 지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무한대(∞) 증폭 효과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한대를 표시하는 기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한(無限, infinity)이라는 개념은 끝이 없거나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말하지요. 이 무한기호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무한대로 나옵니다. 하느님 또한 이 무한하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니 그분께는 아무리 쪼개고 나누어진 다 하더라도 그 무한하심이 손상되지 않으시겠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도 오천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의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 남은 음식이 12 광주리에 가득 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거쳐 나누어지게 되면 한없이 커지는 무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크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므로 무엇이든 그분을 접하게 되면 무한의 열매가 맺히는가롭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한하신 분이래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협력과 응답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시 않으심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도 협력의 응답을 원하였고,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도 “예”라는 협력의 응답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일 빵을 마련하라고 필립보에게 협력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필립보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므로 부정적인 응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응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웬 아이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 협력의 응답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님께서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는 제자들의 체념을 뒤로한 채 당신의 무한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작고 약한 힘이라도 당신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믿고 온전히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태시어 많은 열매를 맺어주실 것입니다. 바오로 수도회의 창립자이신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며 겸덕을 구하는 기도를 남겨주셨습니다. 다 함께 겸덕의 기도를 봉헌해봅시다.

“하느님, 저희가 인간적인 활동에만 의지하지 않음을 당신은 아시오니, 당신의 자비로써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가 저희를 모든 역경에서 보호하게 하소서.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자 하오니 당신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제게는 천국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성바오로수도회 준관구장

천직의 비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기죽어 지낼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게 맞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비판하며, 천직이다 싶은 일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끝없이 노력하고 일에 나를 맞춰가다 보면 그게 적성이고, 특기며 천직이 되는 것이겠지요.

◆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임정빈 보스코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김은지 틸리안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틸리안	신덕래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8월

- ◆ 성모신심미사 : 4일(토) 오전 8시30분
- ◆ 봉성체 : 9일(목) 오전 10시부터(한 주 연기)
- ◆ 성시간 : 첫목요일 미사와 함께 진행되는
8월 성시간은 본당신부님 출장관계로 쉽니다.

◆ 새 사목회 상임위원 단합대회

- 일시 : 오늘 주일(29일) 오후 7시
-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총무 ☎(213)272-3598

◆ 신앙 특강

- 주제 : "남자와 여자의 차이"
- 일시 : 8월5일(주일) 오후 1시 성전
- 강사 : 노성기 루보 신부님(광주가톨릭대 총장 교부학박사)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213)505-2941

◆ 예비자 교리반 개설 및 신자 재교육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우리 백삼위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교우들도 재교육 차원에서 예비자들과 함께 교리를 수강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환영식 : 2012년 9월2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기간 : 2012년 9월~2013년 3월
- 세례식 예정 : 2013년 부활절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문의 : 복음화분과장 이영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부산교구 사제협 연수 본당 신부님 참석

- 일시 : 7월30일(월)~8월3일(금)
- 연수지역 : 시카고
- 이 기간중 수요일(8월1일)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목/금요일 미사는 노성기 신부님(광주가톨릭대 총장)께서 집전해주십니다.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2012년 첫 수혜자 발표

지난 1월 자녀들을 위해 뜻있는 익명의 교우가 봉헌한 장학금으로 설립된 백삼위장학회(회장 이재정 사도요한)가 그동안 진지한 심사를 거쳐 11명의 첫 수혜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학업성적뿐만아니라 봉사활동을통해 가톨릭신자로서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 축하합니다! ☺

- 운영위원 : 본당 신부님 포함 8명
- 선발된 후보자 11명 : 김서영(엘리아스), 김지수(보나), 박윤지(안나), 송병찬(요한), 임정빈(보스코), 오수지(미카엘라), 유 존(요한), 윤캐서린(카타리나), 정혜정(젬마), 한알렉스(라파엘), 한지혜(소피아) -가나다 순-
- 장학금 수여식 : 8월12일(주일) 낮미사후

◆ 매론 청년회 펀드레이징

- 맛있는 왕만두와 왕편빵을 판매합니다.
- 일시 : 8월4일 특전미사후(냉동상품)
8월5일 낮11시미사후 냉동 및 친교자리 점심용
- 문의 : 청년회장 최태훈 아오스당 ☎(310) 508-2123

◆ M.E.소식

- 본당 ME 8월 세어랑 : 8월5일(주일) 오후 6시15분, 강당
- 남가주 ME 첫주말 신청(9월14일~16일 2박3일)
- 남가주 ME 30주년 책자발행 협조권 : 1차(1982년)~43차(1999년) 수장자들의 단체사진, 명단, 행사사진 수집
- 문의 : 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율리아 ☎780-9055

◆ 홍보분과에서 각단체 임원연락처 정리, 자료 보내주세요.

- 대상 : 사목회, 각단체 임원연락처(전화번호, e메일)
- 보낼곳 : 본당 홍보분과 103skcc@gmail.com
- 본당 홈페이지(http://103skcc.org)의 알람게시판을 참조해주시시오. * 문의 : 안재만 다니엘 ☎(310)972-0239

◆ 백삼위 서예반 회원 모집

- 시간 : 매월 둘째, 넷째 주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 지도 : 한국예총미주서예가협회 회장 박태홍(일호)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29일(주일) : 토런스 서2반(해물카레 \$3)
- 8월5일(주일) : 청년회(왕만두/편빵 \$청년회 기금모금)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강인모 김종문 이병찬 임한나 황윤재	금동균 김종훈 이영희 정훈모 황지영	김상규 신순철 이용식 지경수 마이클송	김윤진 엄세종 이용무 최재은 최희숙	김 은 유정복 이일길 최재은 최희숙	김재영 윤 철 이종선 한경희
					합계 : \$2,650	
성전헌금	강인모 이병찬 지경수	금동균 이영희 최재은	김윤진 이용식 황지영	김종문 이용무 송마이클	신순철 임한나	엄세종 정훈모
						합계 : \$1,410
미사헌금 : \$2,861	주보광고후원 : \$625(감사합니다.)					감사헌금 : 박이레네 박미경 석순영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복사단 회합

- 일시 : 8월4(토) 오후 4시 성전
- 대상 : 신·구 복사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본당 수녀님, 황선홍 그레고리오 ☎(424)903-6637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 · 11시미사 전후
 -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 대상 K~12학년, SAT II
- 여름방학 SAT 한국어 특별반 모집
 - * ① SAT 기초 준비반 ② SAT 집중문제 풀이반
 - * 수업시간 : 주일 학생미사후(등록금: 새학기등록자 무료)
- 교사 모집 : 대상 - 보조교사
 -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교장 ☎(310)464-7490

한국 성지순례 및 관광

- 순례일정 : 10월13일(토)~21일(주일) 8박9일
- 순례지 : 새남터, 절두산, 솔피, 공세리, 언양, 풍수원, 배론, 피아골, 연풍성지 등
- 관광지 : 설악산 남해안 경주, 청계천 전주 등
- 문의 : 김예란 캐롤라인 ☎(714)2883-7540

남가주 소식

일본군 위안부문제 사과 촉구 결의안(미연방하원案 HR121) 통과 5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 기림비설립(LA) 모금 및 위안부 생존자와의 만남
 - * 일시 : 7월30일(월) 오후 6시30분
 - * 장소 : 글렌데일 센트럴 라이브러리 오디오터리엄 (222 E. Harvard St. Glendale, CA 91205)
 - * 참석자 : 생존자 김복동 할머니, 윤미향 정대협 대표, 글렌데일 시의회의원 등
 - * 모금 및 광고후원 문의 : 가주한미포럼 김성희 간사 ☎(213)545-1905

'청실 홍실' 만남의 장

- 일시 : 8월12일(주일) 오후 5시,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주관 : 남가주한인종신부제협의회(김재동 요한 부제)
- 신청 및 문의 : 정시문 사무국장 ☎(714)530-3111

성 이나시오 19번 영신수련 피정자 모집

- 일상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 기간 : 2012년 9월~2013년 6월
- 회비 : \$700(도네이션으로 봉헌됩니다.)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오렌지카운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남명자 테레사 365-2542 8/14(화) 반미사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석안젤라, 민안나 634-9631 8/11(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8/15(수)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8/11(토) 오후 7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심재은 클레멘스 999-5808 8/11(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진영선 크리스티나 781-0856 8/8(수)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송기철 루카 974-2857 8/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8/7(화) 오전 10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8/21(화) 반미사 오후 7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8/11(초)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8/19(주일) 오전 10시 월순막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박의혜 세실리아 541-0700 8/17(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8/9(목) 오후 8시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8/17(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반나영 세실리아 404-206-2911 8/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새사목상임위단합대회	오후 7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예수님 사건

상상은 엉뚱하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합니다. 전 성경을 볼 때 종종 상상합니다. 이 상상에 따르면 신약의 근본은 '예수님 사건'입니다. 신약성경이 '예수님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라고 상상하는 거지요. 직업의식의 발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도는 크게 2가지 범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주석이나 설명을 더한 '해설 박스'기사입니다. '스트레이트'는 4복음서입니다. 마르코, 마태오, 루카, 요한이지요. '사도행전'은 4 복음의 '속보성 스트레이트'입니다. 필립보, 로마, 데살로니카서 등 나머지 대부분의 신약은 '해설 박스'입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라도 기자(복음사가)들의 주제 의식에 따라 그 시작(기사에선 이를 '리드'라 합니다)과 스타일, 내용 구성이 다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의 리드는 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그 뒤의 팩트들은 이 주제 의식을 입증하는 논거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활동과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을 보도하는 것이지요. 이 보도는 행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유대인적 혈통에 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적 혈통과 공생활에 앞선 그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또 다른 복음보다 산상설교 등 '예수님 강론'의 내용을 보다 더 많이 실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은 앞의 두 복음서에 비해 리드가 좀 더 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리드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 사건'을 공생활 이전 '탄생'에서부터 순서대로 서술하는 것이지요. 루카 복음은 다른 복음보다 시점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육하원칙'에 좀 더 충실한 셈이지요. '요한 복음'의 시작은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철학적이기도 하구요. 4복음 중 '리드'가 가장 길습니다. 말씀, 생명, 빛의 상징이 심오합니다. 이 주제 의식에 따라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해 보도합니다.

전 성경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런 상상은 그냥 개인의 엉터리 공상에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예수 사건'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거지요. 저라면 어떻게 보도

할까요? 이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 말씀이 닫힌 바가 아니어서 지금 우리의 응답, 반응이 더해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틈새, 여백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의 소통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빛은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박주영 웰레스티노<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장>
park21@chosun.com

길을 찾는 고대에게

☞ 예전보다 생각이 많이 굳어버렸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경직된 사고는 옳은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되어 없애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예수는 자유의 몸이시다'라는 제목을 단 책도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묘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표현은 무엇보다, 그분의 사고와 행위가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사고와 행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응이나 반복되어 익숙해진 행위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인간행위는 생각의 결과물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인이실 수 있음은, 그분의 생각이나 행위가 어딘가에 얽매어 있거나 틀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유로움이 하느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질문처럼 생각이 굳어버렸다는 느낌은 나의 사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어딘가 매여있기 때문이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경직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선 연습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생각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독단으로 굳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독단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의 커다란 위협입니다.

◆홍경완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수>
mederico@cup.ac.kr